

“새 시대 여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귀공명은 한 자락의 꿈”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무시 무중(無始 無終)으로 세월이 흘러 계사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네 가지를 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것이요. 둘째,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가난하고 천해질 수 있으며. 셋째, 어떠한 것이든 모이면 흩어지기 마련이고. 넷째, 건강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 일이란 것입니다.

모든 부귀공명은 한자락 꿈인 것을 서역에는 싸움질, 복년에는 불꽃도래질, 물 건너는 땅따먹기질인 세상입니다. 모든 고통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되니 부처님 가르침 되새기며 지난 한해의 그릇된 잘못들을 참회하시길 바랍니다. 해가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대통합으로 새 시대를 열어 밝아오는 새해에는 국운이 번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참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얼었던 대지를 녹여주는 따뜻한 기운이 중생들 곁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됨을 자각하고 참회하는 참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남은 자연의 묘리이며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만생명은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나름의 목소리와 표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자기만이 아니라 물레의 모든 것들도 환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승가 모두가 자중하고 참회하는 큰 원이 존재할 때 불교의 진리는 물 흐르듯, 꽃이 피어나듯 자유자재할 것입니다. 그 때야말로 넉넉하고 가득하게 불법이 이 세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만생명과 악축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교법의 수레는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제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불타 본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사년 새해 웃기를 즐기며 부처님을 닮아 기쁨을 주는 중생의 꽃이 됩시다.

“우리 이웃이 모두 부처”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새해에는 우리 모두 벽을 허물고 살아 갑시다.

내니 너니, 싫다 좋다하며 죽음과 삶의 벽을 넘나드는 중생들이 가여워서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 직접 깨달음을 보이셨습니다.

대장경의 가르침 가운데 《법화경》에는 ‘아역위세부 구제고 환자(我亦爲世父 救濟苦患者)’라는 말을 전합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아버지이니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중생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뀌 생각하면 나와 너의 상을 없애면 우리 모두가 부처이듯, 우리네 중생을 건지는 부처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해서 모두가 성불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가여운 우리들을 함께 보살핍시다.

“오늘따라 푸른 하늘은 구름 몇 장 띄워놓고 말없이 성불의 의미를 전하고 있네.”

“우주 법연의 주인공 되자”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총재 전국일불문도중앙회 회장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이사 의륜



계사년 새해가 밝아 부처님 자비광명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합니다. 계사년 새해 새날 아침에 선행만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여 청정한 마음 항상 지닐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원합니다.

지나간 힘든 일들은 털어 버리고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할 때만이 맑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 물과 젓처럼 화합할 것이요, 물위에 기름처럼 겹들지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마지막으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처님에 열심히 정진하여 우주 법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올 한해 맑은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다 함께 정진해 나아가갑시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존중과 배려의 새해 맞자”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통합과 화합의 실천은 2013 계사년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파사(破邪)가 현정(顯正)이듯 삼됨을 과감히 깨뜨릴 때 바름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파사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물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 물이지만 자세히 보면 수소와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화합이란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은 선조 영령들의 진혼(鎭魂)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활차게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옥불탁발성기(玉不琢不成器)라, 아무리 귀한 옥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듯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다가올 희망찬 새누리를 맞이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를”

(사)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승언수회종(承言須會宗) 물자립진구(物自立親矩) 독자불회도(獨自不會道) 운족언지로(運足焉知路) 언어를 통해 종지를 언어야지 말이나 규범만 따르지 마라.

눈으로 보고도 도를 모른다면 걸음이 어찌 목적지를 알겠는가.

국가의 경영이 바로가고 온 국민이 편안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한 알의 씨앗이 복 밭에 떨어지면 만 알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하였습니다. 불법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보시하고 나누는 것은 성불의 전당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쉽 없이 이어질 때 그 인연의 공덕으로 다생겁의 가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새해에는 소외받고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용서하고 포용합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다 용서하고 사람으로 포용합시다.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의 삶은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지면 다시 떠온 세상을 비추듯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더 화합과 상생으로 서로를 치유하고 다독여 가야 합니다.

매년 새해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그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불가에서는 발심한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활차게 살아 갑시다. 온 세상 모두가 동체대비심으로 뭉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삶이 멀진 않습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 하나 마음씀을 바꾸는 데서 시작합니다. 정진 합시다.

“끊임없이 철저히 정진하자”

(재)대한불교일불선교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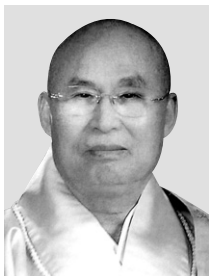


약유불자(若有佛子) 수종종행(修種種種行) 구무상해(求無上慧) 필득정각(必得正覺) 만약 어떤 불자(佛子)가 있어 가지가지 행(行)을 닦아 위없는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리라.

우리들은 이미 부처의 품성(品性)을 갖추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다만 불행(佛行)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세생생 억겁의 전생에서 선행과 수행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까. 끊임없는 정진으로 금생이 아니라도 내생에는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야 합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신행(信行)으로 빛나는 불자(佛子)가 됩시다.

“참세상 위해서는 수행 필요”

(사)대한불교통합선교종 종정 정각



정각일일 송미륵(正覺日日 頌彌勒) 처저온풍 전법음(處處溫風 傳法音) 아야산창 금월색(夜夜山窓 吟月色) 조조선양 청송음(朝朝禪陽 聽松音) 정각이 매일매일 미륵보살을 정성껏 모시니

곳곳마다 따뜻한 바람이 나의 실범 전해주네 달빛 비치는 산정에서 밤마다 시를 읊으니 소나무 밑 좌선(坐禪)에서 솔바람 소리 듣노라.

계사년 벼두에 자욱한 안개 삼계(三界)를 덮어 놓았으니 감로의 법우(法雨)를 중생에게 자욱이 내려주소서. 진실을 알아 진실로 생각하고, 거짓을 보아 거짓을 알면 이야말로 정당한 소견이라. 그는 반듯이 참 이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여실해 보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새해 소나무 밑에서 선정에 들어보아야 어찌한지요.

“고난서도 배우는 자세 갖자”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각호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 밝은 희망도 있지만 다툼을 어려움도 감지됩니다. 아만과 편견, 대립을 버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다가올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고난에서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합시다.

불교는 내가 개인적으로 잘먹고 잘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중을 함께 이끌고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신 신 것은 스스로의 수행을 넘어 당시 그 사회를 밝혀 나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으로 무엇이 정업인지 아는 것입니다. 눈을 새로이 뜨고 새해 아침 부처님의 법으로 바르게 업을 닦아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버릴 수 있습니다.

계사년 새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마음 된다면 갈등 해결 쉬워”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대행 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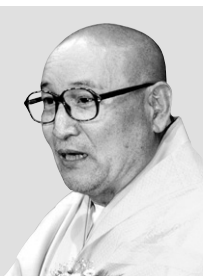


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지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야말로 대승보살의 정신이요, 세상의 온갖 얼룩진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발자여러분! 새해에는 걸림이 없는 자비행의 원력을 세우고 인류가 공생하고 세계가 하나돼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세상은 멀지 않습니다. 각자가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한다면 계사년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파사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성불합시다.

“만족하면 매사가 즐거워져”

(사)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지족자 빈천역락(知足者 貧賤亦樂) 부지족자 부귀역우(不知足者 富貴亦憂) 범사 유인정(凡事 留人情) 후래 호상견(後來 好相見)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겁게 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고 귀해도 근심하며 산다. 매사에 후한 인정을 베풀면 후일 좋은 얼굴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중일아함경》에는 사람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욕정, 술, 잠입니다.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란 형상이 없으므로 만족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만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허전해 집니다. 차라리 그 탐내는 열정을 주변 사람에게 인정으로 베푸는 것으로 푸는 것은 어떨까요.

“선행 베풀고 덕 많이 쌓자”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원악이선배사종정(遠惡遷善背邪從正) 회망념위증득보리(廻妄念爲證得菩提) 악은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샅된 것은 등지고 바른길로 쫓아서, 망령된 생각을 돌이켜서 보리증득을 하라.

계사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경제적인 불황과 정치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계속 이어졌으며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도 많았다고 봅니다.

바른길을 쫓아서, 망령된 생각을 잘 돌이켜서 지혜롭게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마음속 깊이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선행을 베풀고 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일들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풍요로 국운 융창을”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다사다난했던 임진년이 가고 계사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계사년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심지어 동물 중 상상의 동물인 용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털과 발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뱀을 우리 민속(民俗)에서 영혼, 불사, 재생, 영생, 간교한 지혜와 애욕,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기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뱀은 관자재보살로서 무지(無智)한 인간들을 일깨워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보살을 의미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중이 다 함께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뱀이 지닌 의미인 ‘지혜’와 ‘풍요’를 잘 살려 국운이 융창하고 모든 국민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히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무명 견어내고 선연 잇자”

대한불교공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동혜장명등(不滅燈今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個人人燈) 장명동혜불멸등(長明燈今不滅燈) 청정사해만인락(淸淨四海萬人樂)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 실원성취다복년(悉願成就多福年)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사람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등불일세 기리기리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사해 청정하고 만인이 즐거우며 세세년년 밝게 비치니 영원의 등불이여라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계사년 새해에 뜨는 해는 불보살님의 큰 뜻이고 힘찬 기운입니다. 무명 견어내고 대승보살도의 선연을 이읍시다.

“이기심 버리면 행복해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해봉



새날,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매일 매일이 새날이요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을 어디 새해 새날이 있었습니까?

새해는 새로운 한 해(年)의 뜻도 되지만, 새로운 해(태양)라는 뜻도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일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새로운 해는 날마다 떠오릅니다. 태양은 날마다, 순간마다 변화하고 새로운 해입니다. 우리에게 삶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시간, 같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무쌍하고 덧없기 때문에 제행무상(諸行無常)입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감동과 존경,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과 이기심의 마음을 버우고 참회의 삶을 산다면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계사년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각자의 성품을 보면 그 자리가 부처”

“부처님 공덕은 헤아릴수 없어”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천산천하 무여불(天上天下 無如佛)
시방세계 역무비(十方世界 亦無比)
세간소유 아진견(世間所有 我盡見)
일체무유 여불자(一切無有 如佛者)

천상천하 부처님 같은 분 없으니 시방 세계에 비교 할데 없네
세상천지를 내가 다 보아도 도무지 부처님 같은 분이 없네

찰진심님 가수지(刺塵心念 可數知)
대해중수 가음진(大海中水 可飲盡)
허공가량 풍가계(虛空可量 風可繫)
무능진설 불공덕(無能盡說 佛功德)

세계에 티끌은 다 헤아려 알아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을 불 들어 뿔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수 없네

“자리이타는 불교의 목적”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자기 자신을 바로하고 나서 남을 제도 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리수 나무 아래서 들었던 선정,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수많은 욕심과 욕망이 밀어 닦쳐도 부처님은 그때 그때 자신을 돌아보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 부처님은 그 깨달음을 여러 대중과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게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며 실천입니다.

나의 마음이 곧 나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계사년 한해를 맞이하여 수행 정진으로 복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2013년 계사년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망과 화합을 여는 한해가 되기를 다짐해 발원합니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한해 되길”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계사년도 지행운통
(癸巳年度 智行運通)

출가대승 재가불자 함께하는 사부대중 승단으로 계사신년 새해에는 문수보살 무수히도 출현하여 지혜력의 심검도를 휘둘러서 의도무리 막아내고 앉고서는 곳곳마다 육바라밀 작용으로 신근력을 발휘하여 이나라뜻 불국토의 적멸궁에 도달하세!

“구하는 마음에 부처 있어”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니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의 빛이 충만한 부처님 세상입니다. 중생 마음은 구하는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은 베푸는 마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 생할 때 괴로움이 시작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구하는 마음에 부처가 같이 있다’ 간절히 염하면 어느새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부처님 마음이 솟아 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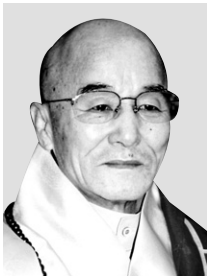
본래 인간은 내면에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기에 내면의 마음에 의지하면 괴로움이 절로 풀립니다. 그 마음에 의지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며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 주변이 모두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두를 부처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마음을 써나가는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한해가 되도록 합시다.

“이기심 버리면 모두가 극락”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계사년 새해는 모두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새해 아침에 목은 때를 벗어 버리고 청정한 기운으로 가슴을 열어 서로의 따뜻한 손을 끌어안습니다. 한 생각 탐욕심이 끝없는 욕망을 만들고, 한 생각 화내는 마음이 악을 만들고, 한 생각 어리석음이 이기심을 키웁니다.

중중제왕의 이 세계는 나 한 사람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입니다. 아집과 이기심의 끈질긴 뿌리를 없애고 무연대자, 동체대비 보살정신을 구현할 때 비로소 나의 행복과 내 가정의 안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것은 평화와 공존을 깨뜨리는 것이니 이기적 분별심을 버리면 모두 극락세계요 좋은 날입니다.

“불자로서 자부심 지니자”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계사년 새해에는 이렇게 가보자. 군자는 남과 쉽게 동화하지 않되 내 주장을 강요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려한다. 소인은 무조건 남과 같이하려고 한다. 서로가 다름이 없다면 창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 세상. 다양함이 없다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존재 할 수 없다.

우리네 자랑스러운 팔만대장경과 금속할자, 고려청자와 금속공예, 다양한 불화를 비롯한 불교문화도 이러한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배경 속에 탄생했다. 그 이면을 보면 세계 교역 등의 흐름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자부심이 있었다. 이에 기반해 다른 문화를 융성한 것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모습, 그 이면에 불자로서의 굳건한 정체성을 지녀야 할 때다. 이런 불자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이 모두 조화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무석가모니불

“인과법 깨우쳐 실천하자”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심외부불의 도리와 마음을 깨치자
성품을 본다면 부처를 찾는 것이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는 우리 모두 마음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은 한번 퍼지면 법계에 두루하고 움츠리면 비늘 끝도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구하려면 마음으로 알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불자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아 자기의 마음이 부처인 줄 안다면 마음밖에서 부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처를 찾았자 한다면 반드시 성품을 보아야 곧 부처일 것이요, 성품을 보지 못한 채 열불을 허거나 경을 읽거나 재계를 지키거나 계를 지킨다면 아무런 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인과의 이치를 깨치는 법을 알아서 실천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퇴전 마음으로 삼독 없애자”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계사년 새해를 맞이해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희망차고 평화로운 기운이 항상 가득차, 하시는 모든 일 들이 모두 성취되 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심이 만들어 내는 끊임없는 욕망, 화내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심, 어리석음으로 가득찬 치심, 이 세 가지의 삼독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三界導師 四生慈父)이신 부처님께서 이 삼독을 없애는 것이 성불의 길로 바로 가는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불퇴전의 마음으로 삼독을 없애도록 정진, 또 정진 합시다.

또한 모든 아상과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밝히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진정한 불자로 생활해 나가시다.

“여여불변의 정신으로 새해를”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정허 신풍



시절일침이(時節日漸異)
유년서불유(流年逝不留)
명일비금일(明日非今日)
흑두장백두(黑頭將白頭)

시절은 날마다 달라지고 흐르는 세월 멈추지 않나니
내일이면 어느새 오늘이 아닌지라 검은머리는 흰 머리로 바뀌었네.

사람은 누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과 함께 열아가는 인생사에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해주는 것이 크다 하겠습니까.

매일 매일 새날을 맞이하고 또 오늘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불산승은 항시 여여불변(恒時 如如不變)의 정신으로 늘 살아가지고 역설 하였습니다.

“구름따라 절따라 한소식”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흥산 현불



승백백운래(僧白白雲來)
환향청수거(還向淸水去)
각하사방로(脚下四方路)
소암노파심(燒庵老婆心)

구름따라 왔던 스님
물 따라 돌아 가네
발 걸음 사방 길
암자를 불태운 한소식!

새해에는 항상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불교가 희망과 긍정의 종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긍정의 생활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 갑시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화합하는 큰 마음으로 계사년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 자비 광명 충만하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임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와 다름이 없고자 한다면 밖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한 생각 마음 속의 청정한 빛은 바로 그대 집속의 법신불(法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분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보신불(報身佛)이며 한 생각 마음 속의 차별없는 빛은 그대 집속의 화신불(化身佛)입니다.

이 세 부처는 바로 그대들이니 곧 지금 눈앞에서 법을 듣는 그대들 자신인 것입니다.

임제선사는 불성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고 지각하고 인식하는 우리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임제 의현 선사의 가풍과 설법은 지암 선사의 가풍이라. 임제의 화는 후학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계사년 한해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분별없으면 시비도 없어”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일념청정(一念淸淨)
예적상영(禮寂常靈)
시영시적(是靈是寂)
시영비적(是靈非寂)
시비질생(是非不生)
범과무극(犯過無極)

한 생각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나니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다고 분별하다 보면, 갖가지 시비가 생겨 그 논쟁과 의문은 끝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살면 어떠한 시비도 없을 것입니다. 계사년 새해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각 가정에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모두 정진합시다.

“하심하며 우리 모두 화합을”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유심



계사년 새해 새날 수행자의 한 마음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은대로 받는다라는 불교의 인과법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실천한다면 큰 결실을 내던져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잘못된 과거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진실되게 반성해야 합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하심(下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남을 존중할 줄 알며, 존중할 줄 아는 이는 존중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존중할 줄 모르면 존중 받을 수 없기에 하심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하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불제자의 참된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계사년 한해 진일보 하는 소중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날이 즐거움만 넘치길”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새해 불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음이 맑아 명경지수와 같으면 독한 마음들이 저절로 녹아 행복한 마음이 유지됩니다.

어떠한 번뇌와 유혹이 일어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과 수행에 따라 계사년에는 정진 합니다. 새해에는 항상 희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대 긍정의 마음입니다. 불교는 고통에 대한 자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의 연기설은 불교가 희망과 긍정의 종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긍정의 생활 속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일들만 만들어 갑시다. 서로의 잘잘못을 떠나 화합하는 큰 마음으로 계사년 소원성불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음은 우리의 마음이 밝고 맑아지고 있음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는 것입니다. 욕망의 불꽃을 끄고 아름다운 마음자리를 닦아 자비심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각오를 세우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또한 대선정곡으로 일찍이 이념과 주장을 대승의 정신으로 융화 하고 대화합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갑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비의 마음이고, 자리이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 지면 세상이 행복해 집니다. 세상이 행복해지면 눈물도 슬픔도 사라집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부처님의 바램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모두 행복을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고 이웃 간에 온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형상만 좇으면 공덕이 없어”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불상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불상이어서 둘이 아닌 이치를 깨쳐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의 마음에서 예배해야 곧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는 큰 공덕이 됩니다.

마음이란 형상도 없고 부피도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서 절을 하려는가 하겠지만 참선하는 선각자가 화두를 드는 의정 중에서 예배하면 그것이 곧 마음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절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조사님들께서는 “눈앞에 나타난 형상만 따라 착하여 절을 한다면 공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도에 떨어질 인(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상에 예배할 때 그 불상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먼저 바르게 아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